

화순군 파격 장려금에…지역정착 ‘쑥’

결혼 이후 5년간 1000만원 지원
수혜 321쌍 중 28쌍만 타지로
정주인구 늘리기 다양한 정책

화순군이 지역 최고 수준의 장려금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은 덜고 지역 정착까지 유도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내고 있다.

화순군은 2021년부터 전남 지역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 후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책 시행 후 현재까지 총 321쌍의 신혼부부에게 17억원의 결혼장려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52쌍은 최대 지원금인 1000만원을 받았다.

‘무궁화 도시’ 장성군 산림청 국가 상징 정부포상 행안부 장관 기관 표창

장성군이 최근 열린 산림청 국가 상징(무궁화) 선양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장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국가의 상징인 무궁화의 보급 확대, 동산 조성·관리, 연구, 교육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을 발굴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8월 7~8일 이틀간 ‘장성무궁화 공원’에서 열린 ‘제1회 나라꽃 무궁화 장성대축제’를 통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렸다.

축제에는 ▲전라남도 무궁화 우수문화 품평회 ▲무궁화 묘목 나눔 ▲공연·버스킹 등 다양한 콘텐츠가 호응을 얻으며 2000여명의 밭길을 모았다.

축제가 열린 ‘장성무궁화공원’은 2021년 장성군과 두산그룹이 함께 조성했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주의 무궁화가 식재되어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히 지금 대상 부부 중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는 28쌍에 불과해, 대부분 부부가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장려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화순을 생활 터전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정주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순군의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층의 결혼을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 정착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1명이 초혼이며, 혼인 신고 후 부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다. 혼인 신고 당일 전입 신고를 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 청년층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였다.

또 다문화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 후 또는 배우자가 국적을 취득해 화순에 주민등록을 두면 최

초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결혼장려금 외에도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주택 제공,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생기본소득 지급, 출산·양육 지원금 등이 있으며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이어지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정책과장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은 청년층의 결혼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역 정주 인구를 늘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성무궁화공원.

명소다. 2022년 산림청 나라꽃 무궁화 명소 최우수상,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궁화는 나라꽃이기도 우

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나라꽃 가치 공유와 무궁화 확산,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품생품土 강진향교’ 국가유산 활용사업 ‘우수’

국가유산청장상 수상

강진향교를 무대로 한 지역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다시 성과를 인정받았다.

강진군은 강진문화원과 공동 추진한 ‘품생품土 강진향교’가 지난해 ‘우리 고장 국가 유산 활용 우수사업’에 선정돼 국가유산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우리 고장 국가 유산 활용사업은 전국에서 100여 개 사업이 시행됐으며 현장점검과 전문가 평가

를 거쳐 향교·서원 활용 부문에서 4개 사업만이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달 18일 대전 전통 나래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강진군을 비롯해 평택시, 보령시, 영주시가 수상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품생품土 강진향교’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호응을 얻었다.

다산 정약용과 차 문화를 결합한 다례 체험, 다산부모학교를 비롯해 인문학 강의와 토론 중

심의 다산 살롱, 다산 지성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체험 교보재와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춘 점이 높이 평가되며, 지역 국가 유산 활용의 모범 사례로 다시 한번 선정됐다. ‘품생품土’의 ‘품’은 플랫폼을 뜻하며, 문화·교육·체험이 어우러진 소통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2023년에 이어 2025년까지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뜻깊다”라며 “명예의 전당 등재 이후에도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DK 디케이 주식회사

공기의 새로운 정의 공간을 빛내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숨.

모든 순간을 더 건강하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나주시는 지난 10일 동신대학교에서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수 일정과 현지 생활, 안전 관리 사항 등을 안내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중학생 28명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나주시가 올해 겨울방학에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중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미국 어학연수를 추진한다.

나주시는 최근 겨울방학 미국 어학연수 참가 학생과 학부모 6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연수 일정과 현지 생활, 안전 관리 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 어학연수는 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 28명이 참가해 오는 23일부터 2월 8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 세인트 빙센트 팔로티 고등학교에서 진행된다.

참가 학생들은 미국 학생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정규수업에 참여하고, 문화 체험과 명문대학

탐방 등을 통해 외국어 역량과 현지 적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해외 어학연수와 함께 나주시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14일간 동신대학교 국제교육원에서 기숙형 영어캠프 운영에 돌입했다.

수준별 6개 반에 학급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기본 어학 수업을 진행한다.

또 신문·방송 뉴스 제작을 배우는 주제 수업과 수학·과학·체육의 교과 연계수업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통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 나산실용예술중 학생들, 교내 카페 운영 수익금 기부

함평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생들이 교내 카페 운영 수익금 130만원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사진)

이번 기부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카페 수익금으로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산실용예술중학교 학생들은 메뉴 기획부터 음료 제조와 정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키웠다. 기부금은 지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추운 겨울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숙 나산면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해 마련한 수익을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한 점이 매우 뜻깊다”라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도 지속

의 하나로 관내 농업인 중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남부지소·서부지소 기업 회원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트랙터와 관리기 등 모든 기종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난해 많은 농업인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영농 부담을 덜 수 있었다”라며 “올해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면 조치를 연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임대료 감면에 그치지 않고 농기계의 유지관리와 신규 기종 확충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